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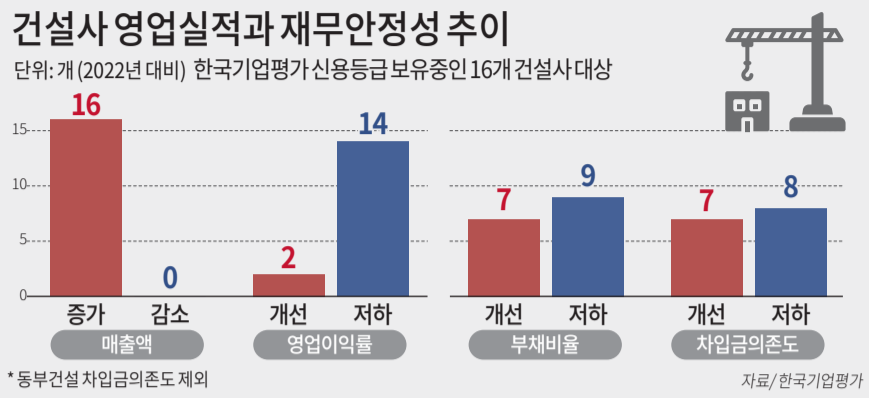
잠재부실 '미청구 공사' 증가... 건설사 '돈맥경화' 경고등

16개 건설사 작년 매출 87.7조
원가상승에 영업이익률은 반토막
늘어난 매출만큼 미수금 등도 ↑
현대·대우·현산, 현금여력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미분양이 쌓이면
서 건설사들의 미청구 공사 증가에 대
한 우려가 커졌다. 최근 몇 년간 늘어난
매출만큼 미청구 공사와 미수금 역시
절대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미분
양 증가가 현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
어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에도 경고등
이 켜졌다.

미청구공사는 공사를 진행하고 발주
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이
다.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하지만, 발주
처가 공정을 완료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돈이라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손
실로 전환한다. 미청구공사를 잠재 부
실로 보는 이유다.

4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유효등
급을 보유하고 있는 16개 건설사의 지



난해 매출은 87조7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13.8% 증가했다. 주택 경기 활황
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늘어난 신
규 수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멘트 및 레미콘 가격 상승, 높은
인건비 등 인플레이션 여파에 영업
이익률은 2%로 반토막이 났다.

16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디엘이앤
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대우건
설, 지에스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신
세계건설, 디엘건설, 한양, 코오롱글로
벌, 계룡건설산업, 에이치엘디앤아이

한라, 동부건설, 한신공영, 금호건설 등
이다.

최한승 한기업 2실장은 "2022년
이후 높아진 원가부담을 반영해 최근에
수주한 물량들이 점차 진행사업에 반영
되고 있지만 여전히 원가 상승기 이전
의 수주 물량이 높은 비중"이라며 "자연
된 공기를 맞추기 위한 돌관공사 영향,
장기 미분양 물량에 대한 대손 반영 등
주택 경기 저하에 따른 사업위험의 영
향"이 점차 영업실적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경기 활황기에 늘어난 매출만큼
못 받는 돈도 많아질 수 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
청구공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
어 주택 건설이 많은 대형 건설사를 중
심으로 미청구공사와 미수금을 분석해
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HDC현
대산업개발 등은 매출액 대비 현금여력
이 감소했다.

김 연구원은 "현금여력이 감소한 기
업의 공통점은 매출액 대비 내야 할 돈
이 감소했다"며 "미리 받은 돈(초과청구
공사)을 썼기 때문이거나 매출액이 증
가해도 그 이상으로 하도급 비용을 바
로바로 지급해 줬다는 얘기로 이런 현
상이 지속되면 현금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이나 차입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황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
다. 수도권은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

세 수요만 늘었다. 지방은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하락했다. 서울의 주간 아파
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지만 수요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

착공 역시 2월엔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반면 분양 시장에선 미
분양이 계속 늘고 있으며, 지난달 청약
에서 미달이 많이 발생했음을 감안하면
3월 미분양도 증가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주택경기 활황기에 밀어내
기 분양으로 건설사들의 외형은 확대됐
지만 경기 약화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으
로 건설업이 장기 침체를 겪은 바 있다.

최 실장은 "분양성과와 상관없이 공
사원가가 투입되면 진행률에 따라 매출
을 인식하는 건설업의 회계처리상 미분
양이 쌓여도 매출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미분양 증가는 공사미수금, 분양미
수금 등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키며
재무리스크 현실화의 시그널일 수 있
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올해 임기만료' 카드사 수장들, 실적이 연임 분수령

작년 신한·하나카드 실적방어 성공
우리카드는 순익 45%나 줄어 고배

지난해 세대교체를 단행한 카드사의
수장들이 지휘봉을 잡은지 2년차에 접
어들었다. 신한·하나카드는 실적방어
에 성공한 반면 우리카드는 반등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와 이호성 하나카드 대
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등이 임기 2
년차를 맞이했다. 지난해 각 대표별 경
영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난 가운데 실
적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세 대표 모두 오는 12월 공식 임기가 끝
나는 만큼 올해 실적이 연임의 분수령
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신한카드의 순이익은 6206억
원이다. 전년(6414억원) 대비 3.2% 감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소했다.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순이익
이 평균 11.5%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이어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8839억원으로 1년새 57.8%
증가했다.

문 대표 취임 후 리스사업 부문의 성
장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신한카드가
리스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6895억
원으로 전년(5179억원) 대비 33.1% 증

가했다. 본업인 신판 결제를 통한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성에 방점
을 둔 전략을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문 대표는 취임사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손꼽은 바 있
다. 지난달 신한카드는 사업 영역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AI 5025' 프로

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해외여행객 확보
에 성공했다. 여행 특화카드인 '트래블
로그'를 앞세워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고
해외신판잔액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가 여행업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트래블로그 홍보
에 집중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여
행은 하나카드'라는 공식을 만들기 위해
입지를 다진 것.

하나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17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감소했다. 단,
4분기 순이익만 놓고 보면 1년 사이
65.5% 증가했다. 리더로서 이 대표의
성패여부는 지난해의 호조세를 올해까
지 이어갈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우리카드 박 대표는 취임 첫 해 고배
를 마셨다. 2023년 우리카드의 순이익
은 1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3%나 줄

었다. 아울러 해외여행객 확보를 위해
출시한 '트래블월렛'도 존재감을 보이
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카드의 직불·체크카드
해외이용금액은 5455억원이다. 전년 대
비 13.1% 증가했다. 반면 여행특화카드
를 운영하지 않았던 신한카드와 KB국
민카드의 체크카드 해외이용금액도 각
각 11.6%, 16.2%씩 증가했다.

독자결제망 구축은 가시적인 성과
로 분류된다. 우리카드의 지속 가능 성
장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업계에
서는 올해 우리카드가 마케팅확대 및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출시 등
신사업속도를 높일 것이라 관측이 나
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대표들이 연말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안
정성에 방점을 찍는 추세지만 반드시
성공을 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수익 증
감에 따라 임기연장때 희비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보험료 내리자 손해율 상승... 車 보험 적자전환 우려

올 1~2월 대형 5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 80.5%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

연초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
하면서 손해보험업계에 빨간불이 켜졌
다. 보험료 인하로 손해율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보
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 전망이 나
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2월
대형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
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
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5%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
(78.2%) 대비 2.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통상 보험업계에서
는 사업비를 고려한 통상적인 자동차보
험의 적정 손해율을 80%로 추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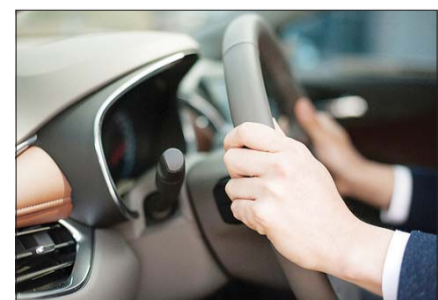
보험사별로는 현대해상이 78.7%에
서 83.2%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삼성
화재는 79.2%에서 80.3%, DB손보가
78.0%에서 79.3%로 상승했다. KB손
보는 78.0%에서 80.5%, 메리츠화재가
77.3%에서 79.1%로 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년도 보험료
인하 및 지난 2월 폭설 등 계절적 요인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손해율이 소폭
상승했다"며 "3월에도 3·1절 연휴 및 봄
철 행락객 증가에 따른 운행량 증가와
맞물려 손해율 악화 요인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
하, 정비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손해
율이 추가적으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다. 보험료 인하로 추가 손해율 상승이
점쳐지면서 적정 손해율을 넘겨 올해
자동차보험이 다시 적자전환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적자를 기록해
오다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흑자전환
한 바 있다. 2018년 7237억원, 2019년 1
조6445억원, 2020년 3799억원의 적자
를 기록했다.

2021년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이동량 감소 영향으로 자동차보험은 흑
자전환했다. 2021년 3981억원, 2022년
4780억원, 지난해 상반기 555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유투이미지

하나은행 자금 2배 저금리 대출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하나은행이 중소 수출기업 후세메니
스에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
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수출 중소·중
견기업에게 수출자금을 최대 2배 한도
로, 저금리(최대 0.7%포인트 인하) 대
출해주는 상품이다. 이를 위해 무역보
험공사와 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금융공급 업무협약을 맺었다. 5대 은행
과 무역보험공사는 총 2조2000억원 규
모로 이같은 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수출 중소·중
견기업과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협업을 해나갈 것"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손보사들은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지
속적으로 인하했다. 지난 2022년 4월 1.
2~1.4%에 이어 2023년 2월에도 2.0~2.
1% 수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내렸다.

올해 역시 지난 2월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3% 인하하면서 인하 폭을 키웠
다. 2월 책임개시계약부터 인하된 보험
료는 앞으로의 손해율에 본격적으로 반
영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